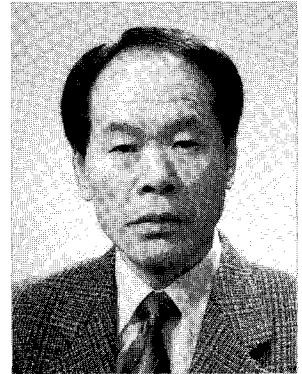


생산성 향상을 위한 우리의 노력

배합사료 가격 이대로 멈추는가!



김 종 선 본회 광주전남지회장

사료는 양계업을 영위함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이것은 양계는 물론이고, 축산을 하지 않는 사람도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우리는 양계를 천직으로 알고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최근 사료가격의 지속적인 인상은 양계를 해야할지 여기서 그만둬야할지 기로에 서게 만들고 있다. 다행히 지난 달 수입곡물가격을 반영하여 대부분 사료회사에서 가격이 다소 내리면서 기대감을 안겨주기도 한다. 가격이 오를 때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떨어질 때는 황소가 뒷걸음질하듯 하니 갈림길에 서있다고 하는 말이 과연 아닐 것이다.

사료회사는 과연 양계인을 파트너로 생각하는가?

2004년은 양계산업을 시작한 이래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사료값이 치솟고, 우리가 과연 양계를 앞으로 해야 할 것인가를 의심하게 만들었던 해였다. 우리 양계인은 40여년동안 사료값이 오르나 떨어지나 사료회사에 문제제기를 과연 어느 단체에서 해 보았는가?

곡물값이 폭등하면 사료값이 오르는 것은 규정 사실이다. 그러나 사료값이 인하될 시기에는 제대로 인하되지 않고, 고가로 구입한 원료가 소진되기 전에는 인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왜 인상

이 될 때는 사료값을 그때그때 반영을 하는가, 사료원료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사료회사들은 인하하는데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서로 경쟁업체의 눈치를 살피는데 급급한 것이 현실이다.

2004년 사료값이 최고로 올랐던 6~7월의 환율을 보면 1,600원이었고, 2005년 2월 17일 현재, 1,025원이다. 2004년 2월 말부터 사료값이 오르기 시작해서 2004년 8월까지 37%가 인상되었다.

이제 와서 농협사료 기준 14% 인하하고, 앞으로 해상운임 곡물시세가 심상치않다고 사료값 인하를 다한 것 마냥 공공연히 그런 말들이 나돌고 있다.

통상 사료값이 인상되면 곡물값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인하되면 사료회사는 양계인들에게 선심이라도 쓰는 양 만족해하고 있다. 우리 양계인들은 그 선심에 만족해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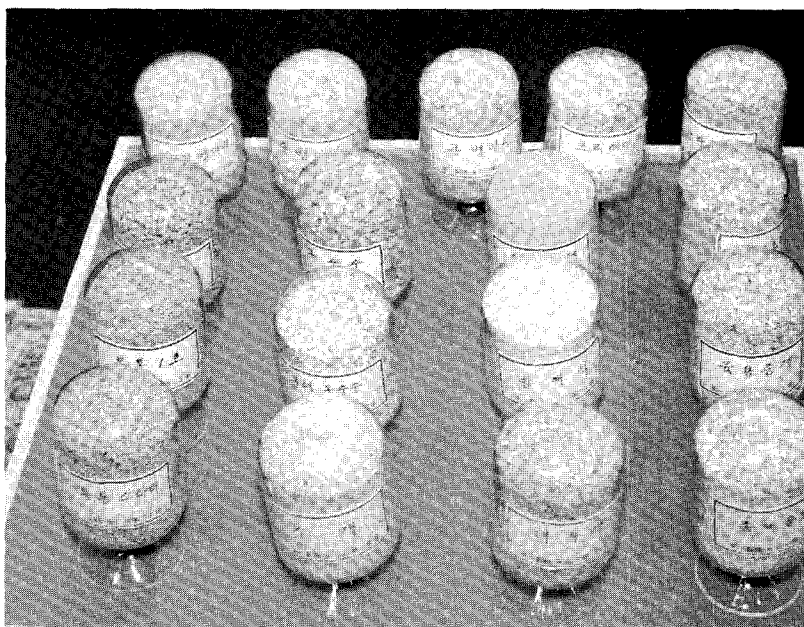
2004년 2월 구정(설) 무렵, 특란 기준 61원. 이 가격대는 80년대의 가격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격이다. 그렇게 20년이 넘게 지내왔다. 우리 양계인은 이런 양계산물을

묵묵히 지금까지 지켜왔고, 열심히 생산해내는데 모든 정성을 기울였다. 그러나 사료회사는 특하면 곡물값, 환율인상의 핑계로 이윤만 적게 나면 그 모든 피해를 우리 양계농가로 돌려 인상을 해왔다.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우리는 계속 아무런 대응 없이 지켜봐야 하는지 내 자신에게 묻고싶다. 과연 양계농가가 사료회사의 봉인가? 우리가 받은 피해의 보상은 어디에 청구하고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는 1990년 중반부터 2000년을 지내오면서 질병과 저 난가의 어려움에 시달려 왔다. 그 어려움 속에 쓰러져 가는 농가를 손놓고 바라만 봐야 하는가. 사료회사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양계인의 부채를 더 가중시켰고, 우리의 어려움은 '나 몰라라' 하고 사료값 인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 노력해왔다.



사료는 양계업 생산비의 70% 가까이 차지하면서 농가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사료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상황에 너무나 쉽게 흔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국제적인 상황변화에 따라 사료가격을 투명하게 반영하여 농가들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농가들의 국제경쟁력 확보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 **양계**